고흥군 치매안심센터 '기억충전 치매환자 쉼터' 운영

낮 시간 치매환자 보호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주 3회(월, 수, 금) 인지재활 프로그램 '기억충전, 치매환자 쉼터' 운영을 신축 개소한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시작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기억충전, 치매환자 쉼터'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낮 2~3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며, 작업치료, 건강체조, 원예수업 등 비약물적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육체적 활동을 통한 기억회상, 현실인식훈련,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의 투약관리, 혈압, 혈당, 영양상태 체크 등 기본 건강관리도 진행하는데 특히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함에 따라 비용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의 부양 부담 및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치매환자의 치매 악화를 방지, 사회적 접촉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치매환자 쉼터 운영은 도양읍 봉암리 치매안심 마을에서 7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직시해 이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치매상담 콜센터 "하나로 서비스"(1899-9988)를 운영하여 24시간 치매관련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구례군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NO! 언제든 부르면 OK!' 슬로건

지난 4월 읍면별 5~7명 구성 복지인적 안전망

구례군은 "우리동네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읍면 복지기동대가 긴급 출동 복지사각 지대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활불편 NO! 언제든 부르면 OK!'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월에 발족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별 5~7명으로 구성된 복지인적 안전망이다.

이들은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전기 및 가스관련 설비종사자,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전등교체, 수전교체 등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긴급 출동하여 일상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출범했다.

지난 10일 문척면 복지기동대(대장 문충원)는 중증 장애인 세대를 방문하여 노후 된 벽지 교체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집안 안팎을 대청소 해주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았다.

간전면 복지기동대(대장 김선동) 또한 지난 5일 독거노인 가정의 천장에서 흙이 떨어진다는 갑작스런 요청으로 긴급 소집하여 천장수리 및 청소 등을 시행하였으며, 장애인 가정에는 싱크대 수전 및 전등 등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읍면 복지기동대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 생활불편을 해결해 주고 있어 지역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생활불편 NO! 언제든 부르면 OK!라는 구호처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주복지재단, 사례관리동행단 보수교육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16일 오후 5·18교육관에서 사례관리동행단 6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례관리동행단'은 촘촘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37개 동과 재단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 초 구성돼 우리지역의 취약계층 발굴, 자원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홍송림 팀장(화정 3동 맞춤형복지팀)과 신미숙 국장(광산구장애인복지관)이 ▲생활보장 관련 복지제도 설명 및 연계방법 ▲돌봄 대상 주민 상담 시 필요한 상담기법 등 실제 업무 이해와 역량강화를 돕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신일섭 대표이사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관리동행단으로 인해 광주복지의 미래가 밝다"며 "앞으로도 돌봄 이웃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과 보살핌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 동구, 폭염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만전'

2136세대 쿨 스카프·부채 배부 및 폭염 행동요령 안내

광주 동구는 올여름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9월까지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거동불편장애인 등 폭염취약가구 2,136세대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5명이 정기적으로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 시에는 △기초건강검진 △온열질환증상에 따른 대처요령 안내 △폭염대비 건강관리방법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폭염특보발령 시에는 모든 대상가구에 수시로 안부전화와 문자,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쿨 스카프·부채 등 폭염대비 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음식섭취가 곤란한 대상자에게는 식사대용 영양식도 제공한다.

더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무더위쉼터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8월말까지 경로당 110개소를 순회하며 폭염예방교육, 무더위쉼터 홍보,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독거어르신 및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군 도암면 지사협, 거동 불편 이웃에 택시 쿠폰 지원

강진군 도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상식, 윤해성)는 거동 불편자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즐거운 외출 사업을 진행하여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택시 이용이 빈번하나 신체적 제약 및 지리적 요건으로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에게 이동권 보장하고자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도암면의 특화사업이다.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이장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현지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함께 방문했다.

이에 거동 불편 정도·가정 형편·장애 유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6가구를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도암면 택시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구와 택시업체 간 1대 1로 결연을 맺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가구당 1만 원 권 쿠폰 5장을 매월 지원하며,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자가 외출을 할 시 부축을 해주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함께 돕는다.

사업 수혜자 김 모 씨는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가지만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읍내까지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교통비도 그렇고 약값도 많이 들지만 형편이 어려워 병원을 못 갈 때도 있다. 쿠폰도 주고 와서 부축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택시도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배려해주시는 것 같다"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윤해성 위원장은 "택시 쿠폰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높고 필요성도 있어 군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비로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협의를 거쳐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